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구 획정 변수 전남 ‘막막’

제22대 총선

첫날 광주 16명·전남 15명 등록
선거사무소·어깨띠 착용 가능
민주 1차 적격심사 통과자 적어
지역 내 대거 등록 예상 빚나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12일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날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8명, 진보당 6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며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9명, 진보당 5명, 자유민주당 1명이다.

지역별로 광주 동남갑 2명, 동남을 1명, 서구갑 2명, 서구를 1명, 북구갑 3명, 북구를 3명, 광산갑 1명, 광산을 3명이다.

전남은 목포 3명, 여수를 1명, 순천광양 곡성구례갑 4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2명, 고흥보성장흥강진 1명, 해남완도진도 1명, 영암무안신안 2명, 담양함평영광장성 1명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현재 광주시 국회의원 의석수 8석과 전남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정

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후보자가 첫날 등록을 마쳤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1차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 13명, 전남 15명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에 민주당에서만 39명 정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39명 중 3분의 1인 13명만 1차 적격 대상에 포함됐다.

적격 판정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예비후보를 등록할 시 당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적격-부적격 기준은 당규와 특별당규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차 자격심사 공모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1차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입지자들은 아직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다. 1차에 많은 입지자가 몰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가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2차 검증 이후 더 많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 제안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대다수의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커녕 현수막을 어디에 걸지, 명함을 어떻게 만들지 기본적인 결정도 못하고 있다.

한편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21~22일로,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2~5일에는 선상투표, 4월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최황지·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강기정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주말 국회 방문, 설득작업 나설 것

도지사와 군공항 이전된 합의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강 시장은 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국) 출장 중에 ‘달빛철도’ 문제가 진전이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단인 국

회의원 261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이다. 강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달 27일 국회의장과 여·야를 만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첫 관문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혀 연내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강 시장은 “이틀 전 홍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다. 홍 시장님은 ‘달빛철도는 알다시피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같이 해왔던 사업’이라면서 홍 시장님이 되려 ‘달빛철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문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처럼 균형 발전이 안돼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

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시장은 “‘달빛철도’법은 ‘지역·지방 살리기 법’이고 ‘지역 균형발전’법이고 ‘예타무력화’법”이라며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보여주어야 지역민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표들을 선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소위원회

에서 중요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말 국토위 관계자들을 만나 호소를 드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오는 17일로 예고된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을 위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만남과 관련, “적어도 지난 번 만남보다는 진전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영광의 얼굴
▶공적 9면

제29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

수상자

종합대상 광주 남구청 (환경부장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생활 속 환경실천부문 대상 해양환경공단 목포지사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패 및 상금 300만원)

환경교육부문 대상 동아여자중학교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서한태환경상 남동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사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시상식

12월 13일 (수)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KJ상생마루

문의

전화 (062) 519-0730

